

2019년 8월 21일, 서귀포시 서홍동 고옥화 씨 댁, 류진옥 조사.

고옥화(여, 1943년생, 서귀포시 서홍동)

-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76년째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장꿩이 약 묻은 콩을 먹고 죽는 꿈을 꾼 암꿩은 장꿩이 콩 먹으려는 것을 알렸지만 콩을 먹고 죽고 말았다. 암꿩은 다른 새들의 혼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총을 맞아서 날개와 다리를 잃은 장꿩을 다시 만나 같이 살았다.

[조사자] 꿩 이야기는 뭐꽈?

[제보자] 여섯 살에부터 그런 거 헤그네 학교 다니기 전에 아버지네 4·3사건에 다 돌아가셔 불고 허난 아버지보단 할아버지가 일 년 뒤에 돌아가시멍 말해줬인디.

건군이 주박날 새 만물이 풍성이요 역을 쓰는 사람이요, 들을 쓰는 짐승이라 인간은 호색이오, 호박 생긴 두령밧디 빙빙 돌아 뎅기단보난 우던 엇인 콩 한 섬 이 울러줄짝 잇이난 장꿩이 하는 말이

“이 콩은 내가 먹켜.”

암꿩은

“먹지 맙서, 먹지 맙서. 언치냑 꿈을 보난 묵은 옷을 벗어 두고 새 옷을 입어 베고 선 저슬에 몸도 굽아 베고 인장기도 품어 베고 뱀 모살도 헤어 베고 단물 도 초아 베고 절 삼배도 맡아 베고 헙디다.”

“그 꿈 좋다. 해몽허라. 아들 날 꿈이여. 내가 봉근 건 내가 먹켜.”

딱 쪽아 먹으난 양 날개가 파닥파닥 허멍 죽어가난 옆 밧드레 베려보난 무지력 총각놈이 서른여덟 잇바디왕 허이등삭 웃어두멍 그 꿩을 가정 가난 앞집으로 가젠 허난 개 무서완 못 가고 뒷집으로 가젠 허난 슢 무서왕 못 가고 나무에 앗양 망이나 보젌.

망 보젌 가난 터력을 북북 뽑아가는

“팔자 좋다. 사주 좋다. 우리 낭군은 죽으믄 죽어도 묵은 옷을 벗어 두고 새옷 을 입어 간다. 거기서 시쳐 가난 팔자 좋다. 사주 좋다. 우리 낭군은 죽으믄 죽

어도 선 저슬에 몸도 곱아간다 또 잡아 가민 인장기도 품어 간다 자기 꿈대로  
소금 발라가민 뱀 모살도 헤어 간다 단물도 초아 간다 상에 올령 절해 가난 절  
삼배도 맙아 간다.”

경행 그 고길 북북 뜰엉 광 앗앙 데껴 부난 낭 위에 앗앙 엉엉 우느넨 허난  
까마귀가 파르륵 날양

“아주머니, 무사 울없우가?”

“첫째 낭군은 총불을 쥐 불고, 둘째 낭군은 개를 쥐 불고, 셋째 낭군은 무지력  
총각 놈을 쥐 불었다.”

“무시거 먹엉 삽니까?”

“콩팥도 줋어 먹고 그럭저럭 삽니다.”

“나영 살게.”

해도 안허난, 파르륵 날아나난 똥소례기가 날아와그네

“아주머니, 무사 울없우가?”

“첫째 낭군은 총불을 쥐 불고, 둘째 낭군은 개를 쥐 불고, 셋째 낭군은 무지력  
총각 넘을 쥐 불언 울없우다.”

“겨울에 뭐 먹엉 삽니까?”

하난

“콩팥도 줋어 먹고 그럭저럭 삽니다.”

헹 똥소례기도 파르륵 날아나 부난 조금 잇이난 날개 한짝 부러지고 다리 한  
짝 부러진 장꿩이 털래털래 날아와그네

“아주머니, 무사 울없우가?”

“첫째 낭군은 총불을 쥐 불고, 둘째 낭군은 개를 쥐 불고, 셋째 낭군은 무지력  
총각 놈을 쥐 부난 울없우다.”

“옵서. 나영 살게. 거슬 트민 무슨 거 먹엉 삽니까. 뽑아 먹어도 말릴 놈의 아  
들이 엇수다. 나도 총 맞은 거우다.”

헤그네 같은 펑끼리 잘 살아그네. 펑들이 그 자손이래.

- 핵심어: 장꿩, 암꿩, 까마귀, 똥소례기, 콩 한섬, 언치냑(어제), 꿈, 총